

광주시 '광주형 응급환자 이송지침' 만든다

광주응급의료지원단 주최 '응급의료 심포지엄·공청회' 광주·전남 지역 응급의료 이송 현황·발전방향 등 논의 응급환자 적정시간내 최적 응급실 찾는 이송지침 수립

광주시와 의료기관, 소방본부 등이 협력해 응급환자가 응급실을 찾아 해매는 일이 없도록 '지역 맞춤형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기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 5일 전남대학교병원 의생명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광주시 응급의료 심포지엄 및 공청회'를 개최했다.

광주시와 전남대병원이 주관하고, 광주시응급의료지원단이 주최한 이날 심포지엄 및 공청회에는 광주소방안전본부, 전남도응급의료지원단, 광주전

라광역응급의료상황실, 전남대학교병원, 조선대학교병원, 광주기독병원, KS병원, 광주한국병원, 광주센트럴병원 등이 참여했다.

1부 심포지엄에서는 광주·전남지역 응급의료 이송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공유하고, 응급환자 병원 선정, 응급환자 수용 및 전원의 어려움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으며, 2부 공청회에서 광주시가 수립 중인 '광주형 응급환자 이송지침'을 주제로 패널 토의가 진행됐다.

특히 지역 내에서 응급환자 적정시간 내 최적의

응급실로 이송할 수 있도록 마련한 '중증도별·질환별 이송병원 가이드라인' 등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광주시는 이날 논의된 다양한 의견과 지난 10월 말 완료된 응급의료 지원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광주형 응급환자 이송지침'을 수립하고, 응급의료 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다.

시는 앞서 응급의료지원단이 개발한 지원조사 도구(중상별, 질환별 700여개 항목)를 통해 21개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응급의료 지원조사를 실시했다.

배갑숙 광주시 공공보건의료과장은 "지역 내 응급환자가 골든타임 내 최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으로 실정에 맞는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장애인·시민 한마음 대축제

곰두리봉사회·광주시사회복지심부름지원센터, 11일

연말을 맞아 광주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노약자들이 한 데 어우러진 한마음 대축제가 열릴 예정이다. 주변을 훈훈하게 하고 있다.

(사)곰두리봉사회와 (사)광주시사회복지심부름지원센터가 주최·주관하고 광주시에서 후원하는 '제36회 빛고를 광주사랑 장애인과 시민 한마음 대축제'가 오는 11일 오후 1시 30분부터 서구 제아트웨딩컨벤션 대강당에서 1, 2, 3부로 나눠 진행된다. 1부는 다양한 식전 공연, 2부에선 유공자 표창 및 공로패 시상식 등이 예정돼 있다.

이날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노래 자랑은 오후 3시부터 열리는데, 일반 시민은 물론 초청 가수들도 다수 참석한다는 게 주최 측의 설명이다.

올해로 36회째 행사를 이끌고 있는 (사)광주시곰두리봉사회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50여년간 장애인 및 노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차량 봉사와 사회복지 심부름 지원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사)광주시곰두리봉사회 박용구 회장은 "아무런 대가 없이 희생적으로 봉사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시민 공로자를 표창하고, 장애인 복지에 대한 시민의식을 높이기 위해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매년 행사를 이어가고 있다"면서 "관심 있는 시민은 누구나 오셔서 사회적 약자 지원 장애인 복지 활동을 격려하고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인공지능인의 날 광주시는 지난 6일 광주테크노파크 대연회장에서 '제4회 인공지능인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사)인공지능산업협회 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고광완 광주시 행정부시장, 박필순 광주시의회의원, 김종민 (사)인공지능산업협회장, 인공지능 관련 산업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광주시 제공>

광주시, 2025년 마을기업 18일까지 공모

예비·신규·고도화·우수·모두에 등 5개 분야

광주시는 "오는 18일까지 예비·신규·고도화·우수·모두에 등 '2025년도 마을기업'을 공개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마을기업은 지역주민들이 지역자원을 활용해 수익사업을 운영하고 지역문제를 해결하며,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 등을 목표로 설립된 마을단위 기업이다.

이번 공모는 예비마을기업, 신규(1회차), 고도화(3회차), 우수, 모두에 등 5가지 분야로, 광주시와 행정안전부는 현장 실사와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5년 2월께 마을기업을 최종 지정할 예정이다.

신청 자격은 광주시에 소재한 법인으로, 마을기

업의 4대 요건인 공동체성, 공공성, 기업성, 지역성을 충족하고, 적합한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공모 지정에 앞서 필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선정된 마을기업은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판로지원, 전문교육 및 경영·노무 상담, 재정지원사업 신청 자격 등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된다.

고도화 마을기업은 최대 2000만원, 우수 마을기업은 최대 7000만원, 모두에 마을기업은 최대 1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와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누리집에서 공모문을 확인하거나 관할 자치구 마을기업 담당부서, 마을기업 지원기관에 문의하면 된다.

/박진표 기자 lucky@

광주시 수도사업 운영 빛났다...행안부 '우수기관'

전담팀 구성...식용수 위기대응 능력 제고·시설정비·교육 등 호평

광주시에 상수도사업본부는 8일 "환경부 주관 '2024년 일반수도사업 운영·관리 실태점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매년 수도사업자의 경쟁력 있는 상수도 시스템 구축과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도사업자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일반수도사업 운영·관리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평가지표는 수도사업 전반에 걸쳐 일반분야 9개 항목(28점), 운영 및 관리분야 18개 항목(52점), 정책분야 2개 항목(20점) 등 3개 분야 29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광주시는 식용수 분야 위기대응능력 제고, 노후 수도시설 정비, 정수장 운영의 전문가인 정수시설 운영관리사 보유 준수, 소속 직원의 수도분야 법정 교육 준수율 향상 등 시민에게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과 음용률 향상을 위해 노력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는 올해 운영·관리 개선을 위해 전담팀

(TF)을 구성하고, 실무자의 평가지표 사전 검토, 분기별 평가자료 회의를 실시하는 등 운영·관리 실태점검에 집중하고 있다.

김일용 광주상수도사업본부장은 "이번 우수기관 선정은 위기관리 대응체계 확립, 상수도 노후시설물의 체계적 유지관리 등 업무혁신을 통한 상수도 사업본부의 노력이 입증 받은 결과물"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광주시 '지속가능발전 한마당' 첫 개최

9~13일 시청서...성과 공유·전시·체험·토론회 등 다채

광주시와 광주광역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9일부터 13일까지 시청 시민홀에서 '2024 광주 지속가능발전 한마당' 행사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지속가능발전 주간(9-13일) 첫 행사인 '지속가능발전 한마당'은 첫날인 9일 기념식과 6차의 제 성과보고회를 시작으로 지속가능발전 주제전시, 체험부스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를 마련한다.

기념식에서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 시민 사회활동가, 참여단체 관계자,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식전 공연에 이어 올해 추진한 의제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지속가능발전 유공자 표창과 상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광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세계 각국의 지방정부에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위한 거버넌스형 실천사업으로 '지방의제21' 이행을 권고함에 따라 1995년 발족해 활동 중이며, 환경·경제·사회·교육 등 지속가능발전목표 관련 122개 기관·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대한민국 판매 1위 펌프 윌로펌프

강력한 성능! 합리적 가격!
농사용 펌프도 역시 윌로펌프

전국 132개 서비스망